

한국과 중국의 예비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관한 비교 연구

공령유* · 김인재**

〈목 차〉

I. 연구의 목적과 배경	IV. 데이터 분석
II. 이론적 배경	4.1 표본의 특성 및 조작적 정의
2.1 창업	4.2 측정모형 분석
2.2 한·중 창업현황	4.3 구조모형 분석
2.3 창업의지	V. 연구 결과와 의미
2.4 창업의지 영향요인	참고문헌
III. 연구 모형 및 가설	<Abstract>
3.1 연구 모형	
3.1 연구 가설	

I. 연구의 목적과 배경

창업은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취업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요 방법이다. 아시아의 동쪽의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창업은 경제발전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본 논문은 IT 산업 분야의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한국과 중국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서베이(Survey)를 시행하여 예비 창업자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예비창업자의 내적인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

라 창업교육, 정부지원 등 외적인 요인도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국가통계포털(2017)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온 이후 청년창업은 고용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2000년도 대졸 이상 실업자는 23만 명이었고, 2009년에 32만 명, 2017년 8월에는 49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정부는 창업을 통해 실업을 감소시키면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스마트 시대에 새로운 IT 기술 시장의 출현이 한국 창업 시장에 큰 활약을 주고 있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및 창업 유인 정책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예비창업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과, milokly@hanmail.net(주저자)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ijkim@dongguk.edu(교신저자)

자들이 창업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08년 30세 미만의 청년 창업기업은 2,027개에서 2009년 2,414개, 2016년 9만 6155개로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7). 2016년에 새로 생긴 법인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30세 미만의 청년창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한국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안전화하면서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빠르고 좋게 발전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창업이 매우 필요하다. 중국의 교육환경은 원래의 엘리트 교육 방식에서 대중 교육으로 전환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인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농촌 도시화 전략에 따라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많이 탄생하고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국의 취업 준비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간의 불균형이 날수록 심해지고 있다. 취업난 문제는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역할이 기대된다(Shane and Venkataraman, 2000).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

창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기업연구 분야에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이다. Marsella et al.(1974)는 창업은 개체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

는 동태적인 과정이고 새로운 기업의 성립,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한다. Allen(1961)은 창업을 존재하는 업체 중 분명한 모기업이 없는 기업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백형기(1999)는 창업을 새로운 것으로 사업의 기초를 만들고 창업자가 창업 아이디어와 일정한 사업목표 세우고 제품생산 등에 적합한 기업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郁義鴻(2000)은 창업을 기회를 발견하고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高建偉 and 丁德昌(2007)는 대학교 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은 창업자가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식별하며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창업의 경제학적인 개념은 기업가가 자원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분배·재결합함으로써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험적 사업을 시작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최윤정 외, 2007).

학자들이 창업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창업의 본질적인 견해는 일치한다. 창업은 창업자의 특징 때문에 일어나고, 일정한 사회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자원을 활용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실천과정이다. 그래서 창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은 갖고 있다.

(1) 창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개념, 사물, 가치, 제품 등을 창조하는 것이다. (2) 창업은 탐험하는 과정이다. 창업자가 사회적 위험, 관리적 위험, 시장적 위험, 재무적 위험 등 리스크를 실제적으로 관리한다. (3) 창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기업의 이윤, 구성원의 수익, 그리고 사회적 가치 간의 조화

로운 융합이다. (4) 창업은 끝임이 없이 선택하는 과정이다. 창업자는 시대를 앞서 본인의 지식으로 기회와 위험을 감지하여 창업과 관련된 결정을 한다(郁義鴻, 2000).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생 창업은 대부분 사람들이 청년창업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두 창업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 청년 창업은 일반적으로 통계청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기관에서는 15 - 29 세를 기준으로 삼지만 취업과는 달리 다양한 자원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년의 연령층을 30대까지 확장해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양현봉 · 박종복, 2011).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창업을 청년창업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창업자의 학력이 4년제 대학 · 전문대학 · 대학원의 재학 혹은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2.2 한 · 중 창업현황

한국의 취업난 문제는 심각하다. 대학교 졸업이상의 청년 실업자 및 실업률 모두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만성적인 취업난의 원인으로는 취업하기 못해 다시 진학을 선택하므로 고학력자의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나서 대졸이상 실업자 역시 2013년에 약 10만 명을 넘어섰다.

창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증명이 되었다(최영출, 2010). 기존의 기업들은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해고가 고용보다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반면, 신생 기업들은 경제상황에 상관없이 약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매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Hasan and Kane, 2010).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는 창업을 경제 저성장 및 청년실업의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으며 창업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의 대학생 창업을 포함한 청년 창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창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대학생 창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과정을 준비하였다. 중소기업청은 2015년도 창업지원 사업계획에서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지원 예산을 508억 원에서 651억 원으로 대폭 늘렸으며,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전 창업교육이나 멘토링을 제공하였다(노규성 · 강현직, 2012). 창업경진대회나 공모전 등의 대회는 정부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생 창업자들은 보다 더 많은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대학생 창업은 교내의 교수진을 통한 산업 인력 네트워크형성과 자문 등의 인적 자원 확보에 용이하다.

한국의 경우에 30세미만의 청년창업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신설법인 수 84,697개 중 3,885개(4.59%)에 불과하며, 이중에서도 서비스업의 절반 이상인 2,769개(71.2%)로 차지한 것을 보면 한 가지 산업에 대한 편중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국가통계포털, 2014).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2년 전국 대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63.3%의 학생들은 향후에 창업을 할 의향이 있었으나 이중 실제로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외, 2007). 이는 한국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의지가 있으나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로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은 아직 청년 창업이 청년실업의 해결책 및 국가경제성장 동력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2015년 실업인구수는 966만에 달해 작년 대비 14만 명을 증가하였고(중국통계청, 2016), 동시에 2015년 보통고등학교에서 배출한 졸업생이 약 681만 명에 달했다. 이렇게 심각한 취업환경에서 중국 고교 졸업생들도 똑같이 취업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은 일자리 창출, 취직률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대학생 창업하는 경우 다양한 세금감면 등 여러 정책을 발표하여 대학생이 창업을 촉진시킨다. 중국 사람은 창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중국 통계청, 2015). 중국인 57,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거의 65%가 창업을 하고 싶어 하고, 창업 중인 중국인 중에서는 21-30세의 비중이 48%로 가장 많았다(중국 통계청, 2015).

2.3 창업의지

많은 학자들은 조직 구성원들이 의식적인 계획이나 결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동기를 가진다고 한다(Conner and Armitage, 1988). 창업의지는 개인의 가치관으로 창업에 실질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창업의지는 4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Conner and Armitage, 1988). 먼저, 창업욕구다. 창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하게끔 만드는 최초

의 동기다. 두 번째는 창업 동기다. 창업 동기는 일종의 성취욕구이다. 성취 욕구는 최고의 업무 효과와 업무실적을 추구하는 동력이다. 세 번째는 창업에 대한 재미이다. 창업자는 창업을 할 때 창업자의 태도나 정서가 중요하다. 이러한 창업 재미는 창업자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창업 의지를 승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창업에 대한 이상적 인식이다. 창업자는 창업을 하는 동안에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미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창업에 대한 이상적 인식은 인생목표 추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4 창업의지 영향요인

창업자의 개인적 심리요인 등의 내적 요인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Hallam et al., 2008; Mpeera et al., 2010; Bandura and Cervone, 1986). Hallam et al.(2008)은 대학생들의 창업은 대학생들의 지각된 욕구, 지각된 가능성, 그리고 행동성향 등이 결정하며, 장수덕 · 이재훈(2014)은 창업이 자기효능감과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Bandura and Cervone(1986)는 자기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창업의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내적 심리적 요인으로 정의하였고, Mpeera et al.(2010)은 창업과 관련된 개인의 욕구, 예비 창업자의 고용상태, 성공에 대한 자기평가 등이 창업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 있다.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창업자 자신 내부의 특징인 기업가 정신이나 심리적 요인이 아닌, 창업에 관련된 각종 지원 정책들이다. 양준환(2015)은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학

교나 정부측면의 교육지원이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인숙·나영아(2014)는 창업 경진대회, 창업관련 장학제도를 비롯한 많은 외부의 제도적 지원이 청년 창업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재석(2014)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온라인 창업교육이 정부의 창업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Izedonmi(2010)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대학 내부의 창업 교육 및 프로그램이 창업의지를 유발한다고 하였으며, Crant(1996)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Souitaris, et al.(2007)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창업자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소속 대학들이 제공하는 각종 제도적 창업 지원 시책들을 경험하고 지원을 받을수록 창업의지가 강해지며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1) 내부적 요인

많은 연구에서 창업자는 특정한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특징들이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 Hornaday & Bunker(1970)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고, Jialal, et al.(1982)는 성공적인 창업자들은 성취 욕구, 위험감수성, 자신감, 혁신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특성이 창업자가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1) 성취 욕구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할 때 어떠한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욕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창업 준비단계나 창업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창업자 마음속

에 남과 경쟁하여 현재 수준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도전정신을 가지며 계획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환상·서재현, 2012). McClelland(1961)의 성취동기 이론으로 따르면 성취욕구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관리하는 의지, 스스로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려는 욕구라고 하였다. 그래서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성공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책임감이 강하고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2) 위험감수성

창업 준비단계에서 비창업자들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서 창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이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안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포착을 위한 행동은 위험이 많은 선택이다.

사업초기 인적, 물적 자원의 구성과 사업화를 구현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감수한 의사결정을 적기에 할 수 있는 창업가의 역량이 필요하다. 창업초기에 창업자들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행동방식도 완성되지 못하여 위험도 따라 커진다(김성일, 2013). 위험 감수성향은 의사결정에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Smith and Miner(1983)은 빠른 성장을 지향하는 창업가들이 완만한 성장을 지향하는 창업가들보다 위험감수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Sexton and Bowman(1985)은 위험감수성은 기업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3) 혁신성

창업을 할 때 아예 완전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만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영역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살아남으려면 기존 시장 형태에 없거나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좋은 에너지와 영향을 미친다. 혁신이란 기존의 사고방식과 습관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는 것이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업무방식의 시도, 벤처사업의 실험정신, 창의적인 문제해결 등을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삼각주 지역의 첨단기술 기업의 창업과정은 해외첨단 기술기업과 비교하면, 혁신성이 뛰어났다(권명규·양해술, 2016).

(4) 진취성

진취성은 변화를 포착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의지와 시도로 긍정적 사고와 행동력의 바탕이 되는 역량이다. 진취성은 경쟁자들의 반응보다 시장변화에 한발 앞서 참여하는 적극성을 띠는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경쟁 진취성은 산업 내의 경쟁자들보다 능력이 뛰어 나고자 노력하고 경쟁자들의 활동에 강력히 대응한다. 시장에서 경쟁자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하여 도전하며 신규 진입의 범위나 속도 또한 적극적이다(정용, 2007).

2) 외부적 요인

국가의 창업활동이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적 요인, 즉 창업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高建偉 and 丁德昌, 2007). 예비창업자는 창업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느 조직이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 분석을 해야 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1) 성공적 역할모델

창업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요인으로써 많이 연구되어왔던 변수는 부모의 창업 경험이다(윤방섭, 2004). Cooper and Dunkelberg (1987)는 890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자의 50%는 적어도 부모 중 1명 이상이 자기사업을 했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 창업자로서 성공한 부모의 존재가 사회적 학습과정을 통해 자녀들의 창업에 대한 자신감, 창업 경력에 대한 기대, 창업가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욕구를 높여줌으로써 자녀들은 창업을 선호하게 된다(Scherer, et al., 1989).

(2) 정부정책 환경

정부정책 환경은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 활동이다. 권명규·양해술 (2016)는 복잡한 산업 분야에 진출 결정을 할 때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성봉(2015)은 지속적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주현·윤찬오(2013)은 취업난으로 인한 새로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 지원정책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대학 창업지원활동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학 내에서의 창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문화 분위기,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조성, 실제적인 창업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박재환·최민정, 2016). 정연우·반성식(2008)은 예비창업자들이 참여한 창업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및 학교 내부의 학습지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lark and Lucey(1984)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창업교육이 실제로 창업의지를 유발시킨다고 주장하였다.

Ⅲ. 연구 모형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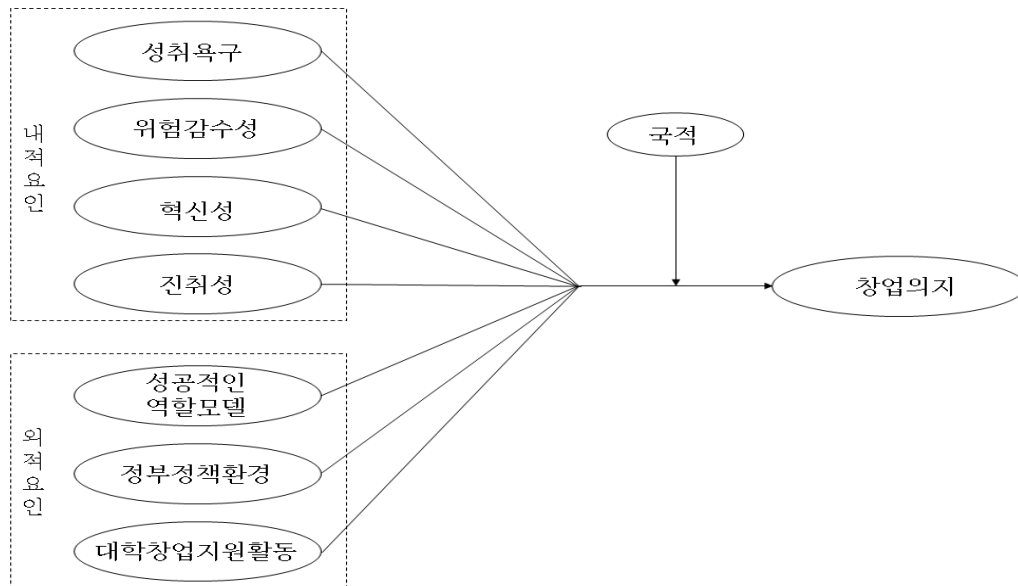
3.1 연구 모형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창업자의 심리적인 내적 요인과 환경적인 외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요인에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등을 포함하고, 외적 요인에 성공적 역할모델, 정부정책 환경, 대학창업 지원활동 등을 포함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국적을 영향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3.2 연구 가설

1) 내적 요인에 관한 가설

성취 욕구는 한 개인이 잠재적인 창업자가



<그림 1> 연구모형

실제 창업자로 변하려고 하는 희망정도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창업자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Eagly and Johnson(1990)는 성취 욕구가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 성공으로 개인의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성취 욕구는 창업자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고 도전 정신을 갖게 한다(Kuratko, 2007). 성취 욕구는 창업자와 비창업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강력한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은 상상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효율적으로 행동하여 높은 성과를 얻으려는 창업자들이다. 그리고 강한 성취 욕구를 가진 창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가지고 있다. 강한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맹목적으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상황을 만들고 끝까지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Kuratko, 2007). 손홍재(2006)은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 분석에서 창업가의 강한 성취욕구와 책임의식이 창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빈봉식·박정기(2002)는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을 규명한 결과에서 심리 특성으로 성취욕구, 통제 위치, 그리고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등이 사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해룡·정성한(2001)은 창업의 성공요인으로 성취욕구를 꼽았다. 최용호 외(2003)은, 13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업가의 성취욕구는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egley and Boyd(1987)는 창업자의 성취욕구, 자율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독립성 등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창업가의 개인 특성 요인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자기 효능감, 성취 욕구, 내적통제 등을 들 수 있다(이지우, 2000; 백운정, 2003; 윤방섭, 2004).

창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창업계획 및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창업자는 사전에 창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Romero, et al.(2011)는 처음으로 창업자를 탐험가로 비유한 학자다. 그는 창업은 위험을 얼마만큼 감수할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위험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위험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해결책을 세운다. 위험 감수성을 가진 창업자는 위험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혁신성 및 진취성 중심의 기업자정신은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윤방섭, 2004). 예비창업자의 혁신성과 진취성이 실증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혁신성과 진취성은 개인들에게 창업을 하려는 동기를 자극하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H1: 성취욕구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외적 요인에 관한 가설

외적 요인이 창업의지에 영향이 미친다. 조병주(1996)는 창업관련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창업교육은 개인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Timmons and Spinelli(1994)는 창업자는 선천적이기 보다는 후천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성공적 역할모델이 있으면 창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대학에서 창업지원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 많은 정보를 받으면 창업에 대한 불확실함이 줄어든다(조병주, 1996). 정대용·노경훈(2010)은 정부정책이 창업의 실적을 좌우하고, 창업하기 전에 미리 정부정책 환경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외적 요인에 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5: 성공적 역할모델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정부정책 환경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대학창업 지원활동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절 요인에 관한 가설

내적 요인 및 외적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국적(한국 및 중국)의 조절 효과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이 문화적으로는 유사한 점도 있으나 국가의 체제가 다르고 경제성장 행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적에 따른 차이점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조절 요인에 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8: 국적은 내적 요인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H8.1: 국적은 성취욕구와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H8.2: 국적은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H8.3: 국적은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H8.4: 국적은 진취성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H9: 국적은 외적 요인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H9.1: 국적은 성공적인 역할모델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H9.2: 국적은 정부정책 환경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H9.3: 국적은 대학창업 지원활동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IV. 데이터 분석

4.1 표본의 특성 및 조직적 정의

본 연구는 한국 및 중국의 전문대학생,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 중에서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업이 정신 등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 및 중국의 전문대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9

<표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명, %)

변수	항목	전체	한국	중국
성별	남	210(54.5%)	127(65%)	83(44%)
	여	175(45.5%)	68(35%)	107(56%)
	계	385(100.0%)	195(100%)	190(100%)
연령	10대-20대	7(1.8%)	4(2.1%)	3(1.5%)
	20대-30대	331(86%)	184(94.4%)	147(77.4%)
	30대 이상	47(12.2%)	7(3.5%)	40(21.1%)
	계	385(100.0%)	195(100%)	190(100%)
학력수준	전문대학 재학	17(4.4%)	5(2.6%)	12(6.3%)
	대학 재학	246(63.9%)	142(72.8%)	104(54.7%)
	대학원	73(19%)	48(24.6%)	25(13.1%)
	기타(직업학교 포함)	49(12.7%)	0(0%)	49(25.9%)
	계	385(100.0%)	195(100%)	190(100%)
전공	인문	240(62.3%)	112(57.4%)	128(67.4%)
	이공	129(33.5%)	75(38.5%)	54(28.4%)
	예체능/기타	16(4.2%)	8(4.1%)	8(4.2%)
	계	385(100.0%)	195(100%)	190(100%)

월까지 약 2개월 동안에 인터넷 설문사이트를 통하여 총 420여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385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 응답자 수는 각각 195명과 190명이고, 자료 분석을 위해서 통계프로그램 Lisrel 8.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및 중국의 전문대학생,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의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조사 결과를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전체 대상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 54.5% 대 여성 45.5%로 나왔다. 한국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65%, 여성이 35%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거의 2배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44% 대 56%의 비율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수

치를 보였다. 한국과 중국의 연령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지만, 학력 수준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대학 및 대학원 비율이 높았으며, 전공도 이공 분야의 비율이 높았다. <표 2>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와 관련된 문헌이다.

4.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국적(한국 및 중국)을 제외한 총 8개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에 속하는 총 40개의 관측변수(Observatory Variable)로 구성되었다. Lisrel 8.80의 SimPLis(Simple Lisrel)를 이용하여 설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 제시된 잠재변수를 확정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하였으며 요인 적재 값이 0.7 이상(R²은 0.5 이상)인

<표 2>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연구자
독립 변수	성취욕구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성과에 대한 도전, 추가적인 일을 추구함, 일에 대한 평판	김완재·정화영(2007) 김종하(2009) 이승재·한중호(2009)
	위험 감수성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성, 성장 지향성, 위기대처 능력, 불확실한 수익의 감수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감수성	Yang & Dess(2007)
	혁신성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창의적 사고방식	Hurley & Hult(1998)
	진취성	진취적인 일에 대한 선호, 진보적 혹은 개혁적 성향, 목표 달성의 희열, 현재 상황의 만족 정도, 미래 계획의 선호도	정대용·유봉호(2007)
	성공적 역할모델	롤 모델의 유용성, 롤 모델의 역할, 롤 모델의 당위성, 롤 모델의 영향력	정연우·반성식(2008)
	정부정책 환경	전문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창업지원 제도의 영향력, 정부 자금 지원제도의 영향력, 창업지원 컨설팅의 활용정도, 창업 상담의 영향력, 창업 교육의 영향력	Eagly & Johnson(1990) 이인재(2006), 박남규(2015)
	대학 창업 지원 활동	창업에 관한 교과목, 맞춤형 교육, 인턴십, 컨퍼런스 혹은 워크샵, 창업 커뮤니티 지원	Kraaijenbrink, et al(2009)
종속 변수	창업의지	창업 욕구, 창업 기회의 포착, 창업 열정, 가까운 장래의 창업, 창업 준비 정도, 창업 성공 예감, 창업에 대한 정보 활용	Timmons & Spinelli (1994)

<표 3> 잠재변수에 대한 확정적 요인분석

잠재 변수	구성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평균표본추출(Average Variance Reliability)
성취욕구(4)*	0.8675	0.6998
위험감수성(4)	0.8112	0.7551
혁신성(3)	0.7167	0.6118
진취성(4)	0.7843	0.5991
성공적인 역할모델(4)	0.8541	0.7441
정부정책 환경(6)	0.8112	0.7333
대학창업 지원활동(5)	0.7655	0.6221
창업의지(6)	0.8541	0.7121

* : 최종 측정분석에 사용된 관측항목의 수(총 36개 항목)

측정항목을 포함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 그리고 진취성의 측정항목이 각각 1개씩 탈락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된 측

정항목은 총 36개(40-4=36)였다.

구성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은 0.7 이상이고 평균표본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ion) 값은 0.5 이상이면 설문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의 측정항목이 모두 이 기준치를 상회한다 (<표 3> 확정적 요인분석 참조).

4.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신뢰성과 타당성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Koufteros and Marcoulides, 2006)을 하였다. 구조모형의 전반적인 적합정도를 나타내며 카이제곱(χ^2)값을 자유도(df)로 나눈 값(χ^2/df)이 3 이하이면 수용하다고 할 수 있다. 기초모형에 대한 대안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표준 적합지수(NNFI: Non-Normal Fit Index)와

비교 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는 모두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근사오차평균자승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은 0.05 이하이면 적합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적합성($n=385$, $\chi^2=760.42$, $d.f.=386$, $\chi^2/df=1.97$, $NNFI=0.95$, $CFI=0.92$, $RMSEA=0.053$)은 RMSEA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은 가설의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측 검정을 실시하였다. t 값은 유의수준 $\alpha = 0.05$ 를 기준으로 |t|값이 1.645 이상이면 가설을 채택하였다. 국적의 조절효과 분석은 자유모형과 등가제약 모형의 χ^2 의 차이 ($\Delta\chi^2$)가 3.84(자유도가 1인 경우의 임계값)보

<표 4> 가설검정 결과

가설 내용		t 값	결과(인과관계)
H1	성취욕구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3	채택
H2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6.01	채택
H3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9	채택
H4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81	채택
H5	성공적 역할모델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8	기각
H6	정부정책 환경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75	채택
H7	대학창업 지원활동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82	채택
가설 내용		$\Delta\chi^2$	결과(조절효과)
H8	국적은 내적 요인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	부분채택
H8.1	국적은 성취욕구와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4.12	채택
H8.2	국적은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2.53	기각
H8.3	국적은 혁신성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1.48	기각
H8.4	국적은 진취성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3.98	채택
H9	국적은 외적 요인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	부분채택
H9.1	국적은 성공적인 역할모델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2.21	기각
H9.2	국적은 정부정책 환경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4.06	채택
H9.3	국적은 대학창업 지원활동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1.96	기각

다 큰 경우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Koufteros and Marcoulides, 2006).

영향변수는 성공적 역할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적의 조절효과는 성취욕구, 진취성, 그리고 정부정책 환경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내적 요인 및 외적 요인과 창업의지 간의 부분적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표 4>는 조절효과까지 포함한 가설검정의 결과이다.

V. 연구 결과와 의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 및 외적 요인으로 구성된 총 7개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에게 설문지를 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Lisrel 8.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영향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국적(한국과 중국)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영향변수 중에서 성공적 역할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적의 조절효과는 성취욕구, 진취성, 그리고 정부정책 환경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제시된 7개의 내적·외적 영향변수 대부분(6개)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지만, 주위의 멘토(Mentor)라는 인물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예비 창업자가 멘토의

배경과 사업능력이 본인의 역량과는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현재의 상황과는 차별이 되기 때문에 창업의지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적에 따라서 정부 환경정책과 창업의지 간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은 한국과 중국의 기업환경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 실정에 맞는 창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국적이 또한 성취 욕구와 창업의지 간에, 그리고 진취성과 창업의지 간에 조절 효과를 보인 것은 예비 창업자의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시사점을 던진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가 모자이크 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예비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이전 연구와 차별화하고 견고한 연구모형(Solid Research Model)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적이라는 조절변수를 사용하여 예비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7개의 영향요인이 한국과 중국이라는 국적의 차이가 있는지도 엄격한 통계방법(Rigid Statistical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의미도 제시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와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는 국가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창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며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및 중국의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각각의 국가의 창업정책을 수립하고 창업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의 한계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의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화가 다른 서구의 대학생과 청년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면 창업 프로그램 개발, 창업정책 개발에 폭 넓은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7개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외에도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연구 변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모형을 근거로 확장된 모형을 만들고 그 의미를 도출한다면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전공의 차이에 따른 창업 의지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창업으로 연결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전공 분야에 따라서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표본의 크기를 늘린다면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환상, 서재현, “변혁적 리더십, 조직후원인식, 성취욕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5권 제1호, 2012, pp. 435-459.
- 권명규, 양해술, “융복합 산업 분야에서의 창업 지원정책 및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사업실패 부담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5호, 2016, pp. 21-37.
- 김성일, “푸드시스템에서 작동하는 풍요와 빈곤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 제76호, 2013, pp. 109-129.
- 김완재, 정화영,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사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2권 제3호, 2007, pp. 33-60.
- 김재석, “호텔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26권 제7호, 2014, pp. 257-274.
- 김중하, “100 대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국제다문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자원 및 환경자원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1호, 2009, pp. 305-323.
- 김해룡, 정성환,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4권 제2호, 2001, pp. 3-29.
- 노규성, 강현직, “청년창업 지원정책 실태와 활성화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9호, 2012, pp. 79-87.
- 박남규,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업실패부담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재환, 최민정,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11권 제2호, 2016, pp. 9-19.
- 백윤정, “여성창업자의 자기유능감과 사회적 기술, 인적자본이 관리역량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제27호, 2003, pp. 191-219.

- 백형기,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전략,” 미래와 경영, 1999.
- 빈봉식, 박정기,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4권 제3호, 2002, pp. 135-158.
- 손홍재,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양준환,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0호, 2015, pp. 25-45.
- 양현봉, 박종복,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대전: 산업연구, 2011.
- 윤방섭,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2004, pp. 89-110.
- 이성봉, “한국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경상논총, 제33권 제1호, 2015, pp. 97-114.
- 이승재, 한중호, “산업연관 분석을 이용한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동산연구, 제19권 제1호 2009, pp. 5-26.
- 이인숙, 나영아, “대학 내 외식창업 지원요인이 대학생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관광연구저널, 제28권 제7호, 2014, pp. 155-166.
- 이인재, “[특집: 대안적 사회정책 모델] 사회적 기업 ‘컴윈’ 성공요인과 발전과제,” 동향과 전망, 2006, pp. 62-83.
- 이주현, 윤찬오, “경화 방법 및 시간에 따른 고분자 거동 연구,”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2013, pp. 132-132.
- 이지우,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1호, 2000, pp. 121-146.
- 장수덕, 이재훈, “대학생 창업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4호, 2014, pp. 65-76.
- 정대용, 노경훈, “기업가의 자아효능감과 네트워크 유형이 신생·성장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1호, 2010, pp. 385-403.
- 정대용, 유봉호, “학술연구: 기업이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이 조직유효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10권 제2호, 2007, pp. 69-93.
- 정연우, 반성식, “청소년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3권 제1호, 2008, pp. 45-67.
- 정용, “부동산 중개협상의 성과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7, pp. 120-123.
- 조병주, “창업교육의 교과내용결정모형과 전공과정의 개발방향,” 중소기업연구, 제18권 제2호, 1996, pp. 157-184.
- 최영출, “지역교육청 기능 재검토를 위한 초등 학교 공문서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 2010, pp. 165-188.
- 최용호, 신진교, 김승호, “최고경영자, 전략 및 구조요인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2호, 2003, pp. 103-125.
- 최윤정, 김성은, 정지영, 이요행, “개인-환경 합치와 직무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1호, 2007, pp. 362-363.

- Allen, J. M., "Multiple forms of lactic dehydrogenase in tissues of the mouse: their specificity, cellular localization, and response to altered physiological condition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94, No. 3, 1961, pp. 937-951.
- Bandura, A., and Cervone, D., "Differential engagement of self-reactive influences in cognitive motiv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38, No. 1, 1986, pp. 92-113.
- Begley, T. M., and Boyd, D. P.,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 No. 1, 1987, pp. 79-93.
- Clark, R. N., and Lucey, P. G., "Spectral properties of ice particulate mixtures and implications for remote sensing: 1. Intimate mixture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Solid Earth*, Vol. 89, No. B7, 1984, pp. 6341-6348.
- Conner, M., and Armitage, C. J.,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review and avenues for further research,"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8, No. 15, 1998, pp. 1429-1464.
- Cooper, A. C., and Dunkelberg, W. C., "Entrepreneurial research: Old questions, new answers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11, No. 3, 1987, pp. 11-24.
- Crant, J. M.,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No. 34, 1996, pp. 42-49.
- Eagly, A. H., and Johnson, B. T., "Gender and leadership styl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2, 1990, pp. 233.
- Hasan, M. Z., and Kane, C. L., "Colloquium: topological insulators," *Reviews of Modern Physics*, Vol. 82, No. 4, 2010, pp. 3045.
- Hallam, C. R., Leffel, A., and Womack, D.,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 for new technology intrapreneurs and entrepreneurs in a university environment," In *Management of Engineering & Technology, 2008. PICMET 2008. 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p. 754-763.
- Hornaday, J. A., and Bunker, C. S., "The nature of the entrepreneur," *Personnel psychology*, Vol. 23, No. 1, 1970, pp. 47-54.
- Hurley, R. F., and Hult, G. T. M., "Innovation, market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learning: an integration and empirical examination," *The Journal of marketing*, 1998, pp. 42-54.
- Izedonmi, P. F.,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 Students's Entrepreneurial Intentions," *Global Journal of Management and Business Research*, Vol. 10, No. 6, 2010.
- Jialal, I., Welsh, N. H., Joubert, S. M., and Rajput, M. C., "Vascular complications in non-insulin-dependent diabetes in the young," *South African medical journal= Suid-Afrikaanse tydskrif vir geneeskunde*, Vol. 62, No. 6, 1982, pp. 155-157.
- Koufteros, X., and Marcoulides, G., "Product development Practices and performance :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based multi-group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No. 103, 2006, pp. 286-307.
- Kraaijenbrink, J., Bos, G., and Groen, A., "What do students think of the entrepreneurial support given by their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Vol. 9, No. 1, 2009, pp. 110-125.
- Kuratko, D. F., "Entrepreneurial leadership in the 21st century: Guest editor's perspective,"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Vol. 13, No. 4, 2007, pp. 1-11.
- Marsella, A. J., Murray, M. D., and Golden, C., "Ethnic variations in the phenomenology of emotions: I.Sham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5, No. 3, 1974, pp. 312-328.
- McClelland, D. C., *The achievement society*. Princeton, NJ: Von Nostrand, 1961.
- Mpeera N. J., Byabashaija, W., Eyaa, S., Ngoma, M., and Muliira, A., "Social cohesion, groupthink and ethical behavior of public procurement officers," *Journal of Public Procurement*, Vol. 10, No. 1, 2010, pp. 68-92.
- Romero, K., Corrigan, B., Neville, J., Kopko, S., and Cantillon, M., "Striving for an integrated drug-development process for neurodegeneration: the coalition against major diseases," *Neurodegenerative Disease Management*, Vol. 1, No. 5, 2011, pp. 379-385.
- Scherer, R. F., Adams, J. S., Carley, S. S., and Wiebe, F. A.,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3, No. 3, 1989, pp. 53-72.
- Sexton, D. L., and Bowman, N.,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 No. 1, 1985, pp. 129-140.
- Shane, S., and Venkataraman, S.,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5, No. 1, 2000, pp. 217-226.
- Smith, N. R., and Miner, J. B.,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 and

managerial motivation: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4, No. 4, 1983, pp. 325-340.

Souitaris, V., Zerbinati, S., and Al-Laham, A., “Do entrepreneurship programmes rais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i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2, No. 4, 2007, pp. 566-591.

Timmons, J. A., and Spinelli, S.,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Vol. 4), Burr Ridge, IL: Irwin, 1994.

Yang, H., and Dess, G. G., (2007). “Where do entrepreneurial orientations come from? An investigation on their social origin,” *Entrepreneurial strategic processes*, 2007, pp. 223-247.

郁義鴻, 「創業學」, 夏旦大學, 2000.

高建偉, and 丁德昌, 「就業指導與創業教育」, 2007.

국가통계포털(2014)

<http://kosis.kr/index/index.do>

국가통계포털(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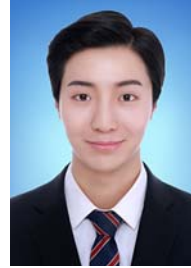
<http://kosis.kr/index/index.do>

중국통계청(2014) <http://www.stats.gov.cn/>

중국통계청(2015) <http://www.stats.gov.cn/>

중국통계청(2016) <http://www.stats.gov.cn/>

공 령 유 (Kong, Ling Yu)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레드브랜딩엔트레이딩그룹에서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이커머스이다.

김 인 재 (Kim, In-Jai)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석사,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에서 경영정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전자 중앙연구소 전산실 개발팀장으로 재직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기술 수용, 정보기술 혁신, 소프트웨어 공학, 빅 데이터 분석 등이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Intentions of Korean and Chinese Preliminary Entrepreneurs

Kong, Ling Yu · Kim, Injai

Purpose

South Korea and China have a long and deep relationship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here are many exchanges between economic and educational or other aspects. It will be interesting to compare the perceptions of preliminary entrepreneurs in South Korea and China.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intentions of Korean and Chinese entrepreneurs, and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entrepreneurs.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is composed of internal and external affecting variables, and one dependent variable as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colleg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in South Korea and in China. Data have been analyzed using a Lisrel 8.80 software.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ll variables except for successful role mode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nationality partially mediat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 Some discussion and implications are suggested.

Keyword: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Intentions, Preliminary Entrepreneurs, Survey, Structural Equation Model, Affecting Factors

* 이 논문은 2019년 5월 31일 접수, 2019년 6월 24일 1차 심사, 2019년 6월 28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